

한국 초등학생의 음악적성과 음악환경에 대한 비교연구 I *

조효임 · 최은식 · 정진원

차 례

- I. 서 론
- II. 연구 절차 및 방법
- III. 연구 결과
- IV. 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
- V. 결 론

I. 서 론

인간의 다른 능력과 마찬가지로 음악적성 역시 그것의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 적인 요인을 확실히 구별하여 밝혀 내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미 실시 되어온 많은 연구들의 결과들은 이 두 가지의 요인들 모두가 음악적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근거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고든(Gordon)에 의하면 아동의 음악적성은 발달적 음악적성이 형성되는 9세까지의 기간동안 제공되는 음악적 경험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유아기에 이어 초등학교 3, 4학년을 전후로 하는 시기까지 아동들이 어떤 음악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가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컬크패트릭(Kirkpatrick)은 1962년의 그의 연구에서 5세 아동의 노래 부르는 능력은 그들의 가정의 음악적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리만(Freeman)은 1974년 음악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진흥재단의 공모 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적 재능이 있는 학생 12명과 미술적 재능이 있는 학생 12명 그리고, 24명의 보통 학생들을 그 환경적인 차이에 중점을 두어 연구한 결과 이들 학생들의 재능은 가정적인 환경(개별 지도, 연주의 장려, 음악애호, 등)과 학교에서의 환경(음악의 장려, 시설, 교수조건, 등) 모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고든 역시 그의 MAP(Musical Aptitude Profile) 점수와 학생들의 다양한 환경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가창능력, 또는 형제의 악기 연주능력과 같은 간접요인보다는 학생의 직접적인 음악경험과 상관있는 요인들, 즉, 악기교습의 여부, 악기연습에 대한 학생의 태도, 음악회 참가여부 등과 같은 요소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위치와 음악적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생겨나는 복합적인 문제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본 연구에 앞서 시행된 두 개의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¹⁾ 제1차 선행연구에서는 고든의 표준화 음악적성 검사 IMMA(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으로 한국 초등학교 학생의 음악적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차 선행연구에서는 동일집단의 음악 환경이 음악적성에 미치는 영향이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자면, 제1차 선행연구에서는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서울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의 음악적성이 같은 연령의 미국학생들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조사대상 학교의 특수성 및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겠으나, 한국의 현재 사교육을 통한 높은 음악교육열을 일차적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제2차 선행연구에서는 조사대상 학생들의 음악적 환경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실기교습, 복수악기교습, 음악회 방문, 음악선호도, 음악 감상매체 등이 음악적성 점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앞의 두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범위를 일층 확대하였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에 한정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배제할 수 없었다. 이는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 재학생들이 비록 서울 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사실이 조사대상 선정의 일차적 근거가 되었으나, 타지역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이 양호하며, 통학의 불편을 감수하는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 할 때, 일반적으로 차별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으로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서울 시흥초등학교 학생들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음악적성 검사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두 지역 학생들의 음악적성과 음악

1) 조효임의, '한국초등학교 학생의 음악적성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15호, 1996, pp. 437-71 : 조효임의, '초등학교 학생의 음악적성과 음악환경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음악논단, 제1집 게재 예정.

환경을 비교하여, 먼저 음악적성과 음악환경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II. 연구 절차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서울 교대 부속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제 1 집단)과 서울의 외곽지역에 위치한 시흥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제 2 집단)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이 연령에서 음악적성이 고정화되는 시기이므로, 이들 학생들을 통하여 두 지역간의 음악적성의 차이와 그 음악적 환경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제1집단의 크기는 $n=160$ 이었으며, 제 2 집단의 크기는 $n=262$ 이었다(총 422명). 전체의 남녀비율은 남학생의 비율이 58.05%($n=245$), 여학생의 비율이 41.94% ($n=177$) 이었다(표 1).

〈표 1〉 학교 및 성별에 따른 실험집단의 분포

	전체		제 1 집단		제 2 집단	
	n	%	n	%	n	%
남자	245	58.05	74	46.25	171	65.26
여자	177	41.94	86	53.75	91	34.73
전체	422	100	160	100	262	100

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는 제 1 차와 제 2 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IMMA 및 설문지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²⁾

3. 연구 절차

1) 조사 절차

선행연구의 비교연구대상으로서 서울외곽지역의 제 2 집단($n=262$)에 대하여 1996년 10월 일

2)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주 1을 참조하기 바란다.

선행연구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음악실에서 음악교과 전담교사에 의하여 음악적성검사와 설문조사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2) 연구기간

본 연구는 약 14개월(1996년 9월-1997년 11월)동안 상기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3) 조사 결과 분석방법

설문의 기초 분석을 위하여 설문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코딩 한 후 매킨토시용 통계 프로그램인 스텐 뷰(StatView)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조사집단의 음악적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사용하였으며, 음악환경은 설문조사 결과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Ⅲ. 조사 결과

1. 음악적성검사(IMMA) 결과

제1집단의 음감원점수는 36.86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89였다. 제2집단의 음감원점수는 35.38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98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제1집단의 음악적성이 제2집단보다 높은 것을 나타낸다.

리듬감의 경우, 제1집단의 리듬원점수는 33.11이었으며, 표준편차는 2.61이었다. 제2집단의 리듬원점수는 33.43이었으며, 표준편차는 2.63으로 나타나 음감점수에 비하여 두 집단의 차이가 적었다(표 2).

〈표 2〉 IMMA 검사결과

	전체			제1집단			제2집단		
	음감	리듬감	종합	음감	리듬감	종합	음감	리듬감	종합
Mean	35.94	33.31	69.25	36.86	33.11	69.98	35.38	33.43	68.81
S. D.	2.08	2.62	3.73	1.89	2.61	3.69	1.98	2.63	3.68
Count	422	422	422	160	160	160	262	262	262

제1집단과 제2집단의 적성검사 결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테스트를 사용하였다(표 3).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을 0.05로 설정하였으므로 음감의 경우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 < 0.05$), 리듬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표 3〉 제1집단과 제2집단의 적성검사 결과의 차이에 대한 t-검증

		mean diff.	df	t	p
음감	제 1 집단, 제 2 집단	1.487	420	76.589	<.0001*
리듬감	제 1 집단, 제 2 집단	-0.313	420	-1.186	0.2364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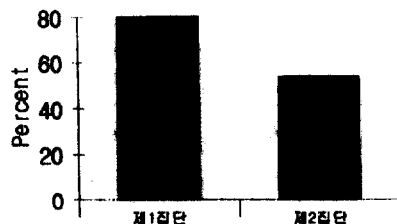
2. 설문 조사 결과

1) 문항 1 : 음악 개인교습 여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의 악기나 성악 개인지도를 1년 이상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체 422명의 학생들 중 63.5% 인 268명이 음악 개인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두 학교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제 1 집단은 80%이고, 제 2 집단은 53.43%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때 남녀간의 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제 1 집단이 74.32%, 제 2 집단이 43.27%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제 1 집단이 84.88%이고 제 2 집단이 72.52%로써 그 차이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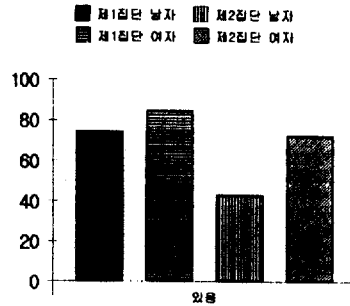
〈표 4〉 음악 개인교습 경험의 유무(%)

	전체	제 1 집단	제 2 집단
있음(n)	63.50(268)	80(128)	53.43(140)
없음(n)	36.49(154)	20(32)	46.56(122)



〈표 5〉 성별에 따른 음악 개인교습 경험(%)

	제 1 집단		제 2 집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있음(n)	74.32(55)	84.88(73)	43.27(74)	72.52(66)
없음(n)	25.67(19)	15.11(13)	56.72(97)	27.4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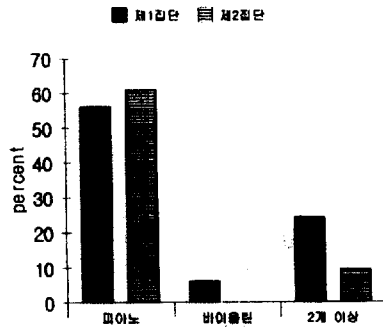


2) 문항 2 : 실기 악기

문항 2에서는 교습 받는 악기의 종류를 묻고 있는데 총 14가지의 악기(가야금, 단소, 거문고, 사물놀이,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클라리넷, 비올라, 오보에, 첼로, 트럼펫, 기타, 성악)가 보기로써 제시되었다. 역시 피아노를 배운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 학생 중 59.24%를 차지하고 있었고, 두 개 이상의 악기를 배운다고 답한 학생은 15.16%를 차지하였다. 두 지역간의 차이점은 제1집단의 경우 선택된 악기들이 제2집단에 비하여 다양하였고, 두 개 이상의 악기를 배운다고 답한 경우도 제2집단이 9.54% 인데 비하여 제1집단은 24.37%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 같은 경향은 남, 여학생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었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악기의 다양성과 복수 악기를 배우고 있는 경우에서 더욱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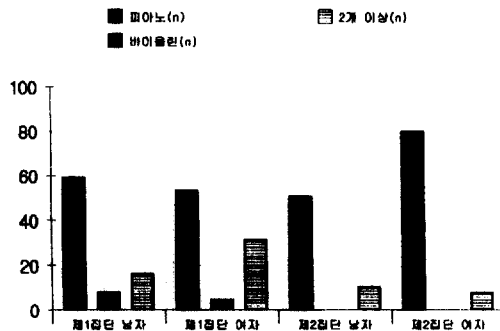
〈표 6〉 개인교습 악기의 종류(%)

	전체	제 1 집단	제 2 집단
피아노(n)	59.24(250)	56.25(90)	61.06(160)
바이올린(n)	2.37(10)	6.25(10)	0(0)
2개 이상(n)	15.16(64)	24.37(39)	9.54(25)



〈표 7〉 성별에 따른 개인교습 악기의 종류(%)

	제 1 집단		제 2 집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피아노(n)	59.45(44)	53.48(46)	50.87(87)	80.22(73)
바이올린(n)	8.10(6)	4.65(4)	0(0)	0(0)
2개 이상(n)	16.21(12)	31.39(27)	10.52(18)	7.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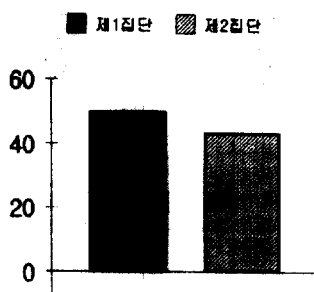


3) 문항 3 : 가족의 음악적 능력(1)

문항 3에서는 가족(부모, 형제)중에 악기를 잘 연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는데 전체 학생 중 45.97%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표). 이 문항에 대하여는 두 지역간에 특별히 차이가 나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제 1 집단이 제 2 집단에 비하여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8〉 가족의 음악적 능력(%)

	전체	제1집단	제2집단
'있다'	45.97	50	43.51



〈표 9〉 성별에 따른 가족의 음악적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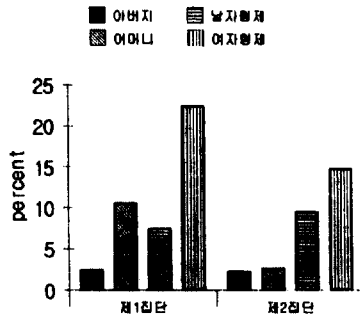
	제 1 집단		제 2 집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있다'	52.79	47.67	42.69	45.05

4) 문항 4 : 가족의 음악적 능력(2)

4번 문항에서는 3번 문항과 연관하여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악기를 잘 연주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어머니와 여자 형제의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순은 전체적으로 여자 형제 -남자형제-어머니-아버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두 지역간의 차이는 역시 제 2 집단보다 제 1 집단이 가족 중 악기를 연주 할 수 있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10〉 가족의 음악적 능력(%)

	전체	제 1 집단	제 2 집단
아버지	2.37	2.5	2.29
어머니	5.68	10.62	2.67
남자형제	8.76	7.5	9.54
여자형제	17.73	22.5	1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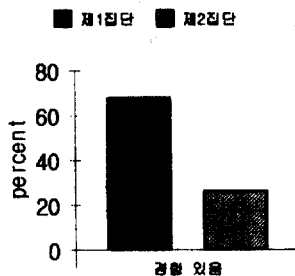


5) 문항 5 : 음악회장 방문 경험의 유무

5번 문항에서는 음악회장에 가 본 경험의 유무를 묻고 있는데 전체의 42.1%의 학생이 음악회장에 가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문항에 대한 답은 두 지역간의 차이가 매우 커서, 제 1 집단의 경우는 68.12%가 음악회장에 가 본 경험이 있는데 반하여, 제 2 집단의 경우는 단지 26.33% 만이 음악회장에 가보았을 뿐이어서, 제 1 집단 학생들이 음악과 관계되는 문화 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음악회장 방문 경험(%)

	전체	제 1 집단	제 2 집단
경험 있음	42.18	68.12	2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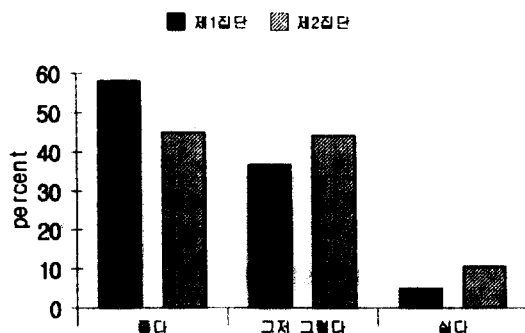
6) 문항 6 : 음악에 대한 선호도

문항 6에서는 음악을 좋아하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응답은 '좋다', '그저 그렇다', '싫다' 중 하

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음악을 '좋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적으로 볼 때, 50% 였고, 제1집단은 58.125%로 전체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제2집단은 45.03%로 전체 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싫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가 8.53%인데 비하여, 제1집단은 5%, 제2집단은 10.68%로 제2집단 어린이들이 음악에 대하여 부정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음악에 대한 태도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제2집단의 남학생들의 경우는 '그저 그렇다'가 57.31%, '싫다'가 15.78%로 음악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제2집단의 여학생의 경우는 '좋다'라고 답한 경우가 79.12%로 음악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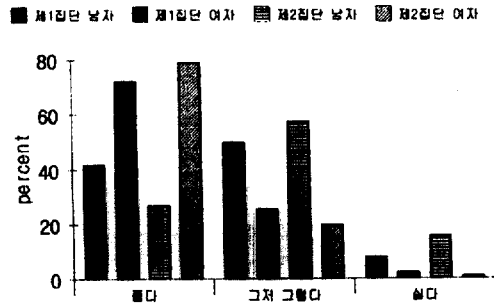
〈표 12〉 음악에 대한 선호도(%)

	전체	제 1 집단	제 2 집단
좋다	50	58.12	45.05
그저 그렇다	41.46	36.87	44.27
싫다	8.53	5	10.68



〈표 13〉 성별에 따른 음악 선호도(%)

	제 1 집단		제 2 집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좋다	41.89	72.09	26.90	79.12
그저 그렇다	50	25.58	57.31	19.78
싫다	8.10	2.32	15.78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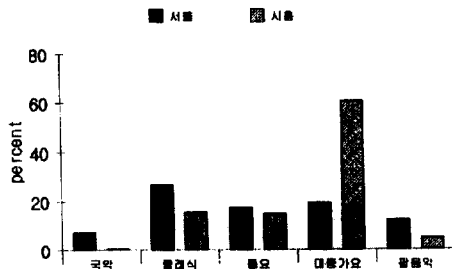


7) 문항 7 : 선호하는 음악의 종류

문항 7에서는 좋아하는 음악의 종류를 물었다. 이 문항에 대한 답은 두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우선 제 1 집단의 4학년 학생들은 클래식 음악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26.87%), 제2집단의 학생들은 60.68%가 대중 음악을 가장 좋아한다고 답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선호하는 음악을 순서대로 살펴본다면, 제 1 집단의 학생들은 클래식-대중가요-동요-팝음악-국악의 순 이었고, 제 2 집단의 학생들은 대중가요-클래식-동요-팝음악-국악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없었으며, 단지 제 1 집단의 여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클래식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29.07%), 대중가요 보다 동요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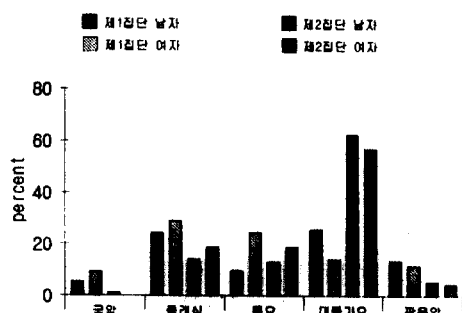
〈표 13〉 선호하는 음악의 종류(%)

	전체	서울	시흥
국악	3.31	7.5	0.7
클래식	19.95	26.87	15.64
동요	15.87	17.5	14.88
대중가요	45.02	19.37	60.68
팝음악	7.82	12.5	4.96



〈표 14〉 성별에 따른 선호하는 음악의 종류(%)

	제 1 집단		제 2 집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국악	5.40	9.32	1.17	0
클래식	24.32	29.07	14.03	18.68
동요	9.45	24.41	12.86	18.68
대중가요	25.67	13.95	62.57	57.14
팝음악	13.51	11.62	5.26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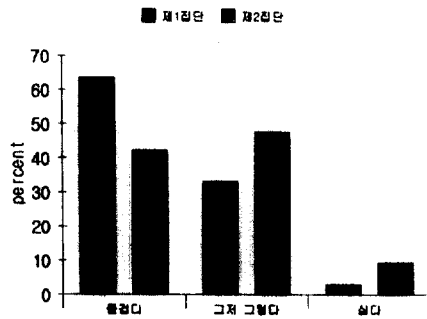


8) 문항 8 : 학교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도

8번의 학교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도 에서도 두 지역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우선 제 1 집단의 학생들은 63.7%가 학교의 음악 수업이 '즐겁다'고 답한 반면, 제 2 집단의 학생들은 42.3%만이 흥미 있다고 답하였고, '싫다'고 답한 경우는 시흥이 9.54%, 서울이 3.12%로서 제 1 집단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대하여 더욱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여학생들의 만족도가 남학생들 보다 훨씬 높은 편이고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집단은 제 2 집단의 남학생들로 나타났다(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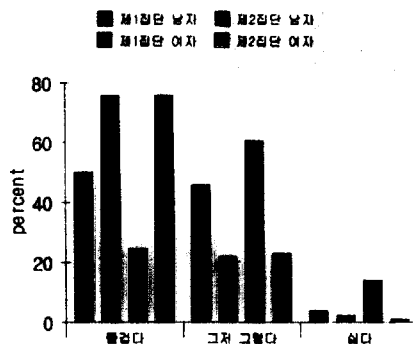
〈표 15〉 음악수업에 대한 흥미도(%)

	전체	제 1 집단	제 2 집단
즐겁다	50.47	63.75	42.36
그저 그렇다	42.18	33.12	47.71
싫다	7.10	3.12	9.54



〈표 16〉 성별에 따른 음악수업에 대한 흥미도(%)

	제 1 집단		제 2 집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즐겁다	50	75.58	24.56	75.82
그저 그렇다	45.94	22.09	60.81	23.07
싫다	4.05	2.32	14.03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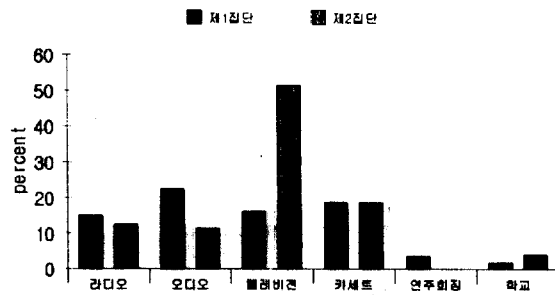
9) 문항 9 : 선호하는 음악감상 매체

9번 문항에서는 무엇을 통하여 음악을 듣는지를 물었다. 전체적으로는 텔레비전-카세트-라디오-오디오-학교-연주회장의 순으로 나타나서, 텔레비전이 학생들의 음악감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은 제 2 집단의 경우 더욱 심하여, 제 1 집단의 학생 중 22.5%가 텔레비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하여, 제 2 집단의 학생들은 반수가 넘는 51.52%가 텔레비전을 통하여 음악을 듣는다고 답하였다. 이밖에도 제 1 집단의 학생들의 경우가 오디오나 음악회장에

서 음악을 듣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제 2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17〉 음악감상 매체(%)

	전체	제1집단	제2집단
라디오	13.50	15	12.59
오디오	40.52	22.5	11.45
텔레비전	13.27	16.25	51.52
카세트	18.72	18.75	18.72
연주회장	1.42	3.75	0
학교	3.31	1.87	4.19



IV. 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

1. 제1집단과 제2집단의 음악적성 비교

1) 음감적성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감적성의 원점수에서 조사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리듬감 적성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났으며(제 1 집단 : 36.86, 제 2 집단 35.38), 이 차이가 통계상의 검증에 의하여(t-test)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이러한 현상은 비단 본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본 연구진의 선행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음을 밝힌 바가 있다³⁾. 따라서 환경적 요인이 음악적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제 1 차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학생

과 미국학생의 음악적성검사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제2차 선행연구에서는 제1집단에 속한 대다수의 학생들(80%)이 일정기간(1년 이상) 개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적으로 음악실기 훈련을 통하여 리듬감보다는 음감적성이 더 계발이 촉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공교육이나 사교육에서의 음악적 훈련에서 조성적 음감교육에 치중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음악교육에서는 음악적성의 균형있는 계발을 위하여 리듬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리듬감 적성 비교

음악적성 검사에서 제1집단의 리듬감 원점수는 33.11이었으며 제2집단은 33.43이었다. 여기서 수치상으로 제2집단이 약간 더 높으나 이 차이에 대한 통계상의 검증결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앞서 선행된 여러 연구의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적거나 기존의 음악적 훈련의 편중현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음악적 환경 비교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 환경이 상이할 것으로 여겨지는 제1집단과 제2집단의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총 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토론에서는 이 9개의 설문항목을 다음과 같은 6개의 음악적 환경변인으로 환원하여 두 조사집단 사이의 차이를 비교설명하고자 한다: 1) 음악실기 개인교습 여부; 2) 가족의 음악적 능력; 3) 음악회장 방문경험; 4) 음악선호; 5) 음악수업에 대한 만족도; 6) 선호하는 음악감상 매체

1) 음악실기 개인교습 여부 (문항 1, 2)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일정기간(1년 이상) 동안 음악 실기 개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 1, 2에서는 제1집단의 80%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제2집단에서는 약53%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표 4). 이 응답결과는 제1집단에 속한 아동들이 제2집단에 속한 아동들보다 음악관련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적성 검사 결과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때(제1집단의 적성검사 점수가 제2집단의 적성검사 점수보다 높았음), 아동의 음악적성 개발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환경(SES)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이는 사회경제적환경

- 3) 제1차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의 학생들이 미국의 학생들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음악적성이 높았으며 특히, 음감적성의 차이가 리듬감 적성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학생들의 경우에는 음감적성과 리듬감 적성의 차이가 한국학생들에 비하여 크지 않았다.

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속한 아동들이 그 자체로 이미 음악적성의 계발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학교의 교육이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추구한다고 볼 때, 음악교육적 측면에서 환경적으로 불리한 여건하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학교음악 차원에서의 보완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음악실기 교습여부의 비교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사항은 실기교습에 있어서의 성비의 불균형 현상과, 이 불균형이 환경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기교습의 경험에 대한 응답을 남, 녀 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표 5), 제1집단과 제2집단 동일하게 여자 응답자가 남자 응답자보다 높은 개인교습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를 통하여 음악을 여성 관련적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오래된 편견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5>에서 보듯이 개인교습에 대한 남, 녀의 비율의 차이는 제1집단 에서보다(약 10%의 차이) 제2집단에서 훨씬 크게 나타 나는데(약 30%의 차이),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환경이 양호할수록 음악활동을 성별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편견이 줄어들을 알 수 있다.

음악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음악활동을 성별과 연결짓고자 하는 경향은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심화되며, 이는 남학생들에게 음악을 지도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의 일부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활동은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매우 독특한 자기표현 방식이라는 사실이 음악교육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떤 종류의 악기를 배우는지를 묻는 두 번째 설문항목에 대하여 제2차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유사하게 제1집단과 제2집단 모두 피아노를 배운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표 6).

배우는 악기의 종류에 대한 두 조사집단의 비교에서 특이한 것은 제1집단의 아동들이 그 비율은 적으나 비교적 다양한 악기들을 배운다고 응답하였으나, 제2집단의 경우 다른 악기들을 배우고 있다는 아동들이 거의 없었다. 특히, 바이올린의 경우, 제1집단의 약6%가 배우고 있었으나, 제2집단의 경우 한명도 없었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아동의 자유로운 음악활동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한 악기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음악의 사교육이 계층의식의 고착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음악교육적 관점에서 아동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소리매체를 선택하여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한 폭넓게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포함한 공교육을 통하여 모든 아동들이 고른 음악교육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음악교육의 제도적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족의 음악적 능력(문항 3, 4)

가족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두집단의 긍정적 응답을 비교한 결과(문항 3) 제1집단이 제2집

단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표 8), 가족 가운데 누가 음악을 잘 하는지를 묻는 문항 4에 대하여 제 1 집단은 여자형제(22.5%)와 어머니(10.62%)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제 2 집단은 여자형제(14.88)와 남자형제(9.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 원인을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겠다. 첫째 제 1 집단의 경우 부모의 문화적 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 주며, 제 2 집단의 경우 가족중 음악을 잘 하는 사람이 부모 대신에 여자형제-남자형제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모의 세대에 비하여 2세대들의 문화적 여건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제 1 집단과 제 2 집단의 아동들이 이해하고 있는 '음악'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아동들이 '학교음악'과 학교 밖의 실생활에서 향유하고 있는 '생활음악'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제 2 집단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좁게는 음악실기교육을 받은 정도의 차이와 학교음악 이외의 음악과 접하는 빈도의 차이에서 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학교음악교육에서 '생활음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시각보다는 생활음악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대하여는 조사집단의 선호하는 음악의 종류를 묻는 문항에 대한 토론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3) 음악회장 방문경험(문항 5)

음악회장 방문경험여부는 제 1 집단과 제 2 집단의 음악적 환경차이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 주고 있는 변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제 1 집단의 경우 약 68%가 음악회장을 방문해 보았다고 응답한 반면, 제 2 집단에서는 약 26%만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음악회장 방문은 좋아하는 음악의 종류에 대한 문항 7의 응답결과와 연관지워 볼 때, 선호하는 음악의 종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특히 예술음악)⁴⁾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여건하에 있는 아동들일수록 음악의 특성에 따라 자신들의 선호를 결정 짓기 보다는 음악적 경험의 편중 현상 때문에 선호할 수 있는 음악의 종류가 대중 음악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또는 음악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환경하에 있는 아동들일수록 학교에서 보다 다양한 음악적 경험의 장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아동들이 다양한 음악적 선택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강요 당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아동들의 대중음악에 대한 과도한 노출로부터의 보호).

4) 음악선호(문항 6, 7)

6번 문항은 음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음악을 좋아하는지의 여부를 묻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4) 여기에서는 대중음악과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소위 '진지한'(serious) 음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서양의 예술음악 및 우리나라의 전통 및 현대음악을 포괄한다.

이에 대하여 제1집단은 약 58%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제2집단은 45%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함으로서 전체적으로 제1집단이 제2집단에 비해 음악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그러나 이를 남,녀 성별로 구별하여 분석해 보면 제1집단의 경우 남자 아동의 약 41%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제2집단의 경우 남자 아동의 약 27%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13). 반면, 여자 아동들의 경우 제2집단의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약 79%) 제1집단의 경우(약 72%)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좋아하는 음악의 종류를 묻는 문항 7에 대하여는 제1집단의 경우 클래식음악을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제2집단의 경우 대중가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앞에서 토론했던 다른 음악환경 변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악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 및 음악의 종류에 대한 선호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음악교육의 수혜정도의 차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주며, 둘째, 음악의 일반적 선호 및 선호하는 음악의 종류에 대한 설문에서 음악이 남자보다는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음악에 대한 고정관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2집단의 경우 약 45%만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는가 하는 문항7에 대하여 약60%에 가까운 아동들이 대중가요를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제2집단 아동들의 음악에 대한 사고가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2집단의 아동들의 경우 '음악'이라는 개념영역에 '대중가요'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전통적인 학교교육이 소위 '예술음악'에 그 범위를 한정 시킴으로서 아동들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음악들이 '음악'이라는 상위개념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었으며, 그러한 결과로 학교음악과 학교밖 음악(주로 대중가요)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아동들에게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아동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다루어 지는 음악은 재미가 없고, 학교밖에서 접하는 음악은 즐거운 음악이라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서 학교음악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며, 이는 다시 교실 음악수업에서의 동기저하의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음악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의 극복을 위해서는 음악교과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오늘날 아동들의 실생활에서 학교음악보다는 대중음악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교육의 음악적 재료 및 음악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서 아동들의 '생활음악'에 대한 순화교육 및 긍정적 수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음악수업에 대한 만족도(문항 8)

음악수업에 대한 흥미도 또는 만족도를 조사한 설문지의 문항 8에 대하여 제1집단과 제2집

단 모두 음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 6에서와 유사한 응답을 하였다. 즉, 제1집단이 제2집단에 비해 음악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아동들이 남자 아동들에 비해 음악수업을 좋아하는 경향이 월등히 높았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동들이 음악수업을 선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는 음악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능력보다는 아동의 음악에 대한 선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아동이 음악시간에 임하기 이전에 이미 음악수업에 대한 호, 불호가 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를 음악교사가 수업과정을 통하여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조사된 집단이 이미 초등학교 1-3학년 과정을 거친 단계이고, 교사의 영향에 관해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수업에 대한 선호에서 교사의 역할과 환경의 역할 가운데 어느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음악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심도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6) 선호하는 음악감상 매체(문항 9)

선호하는 음악감상 매체에 대하여도 제1집단과 제2집단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아동들이 제일 선호하는 감상매체로서 제1집단의 아동들은 오디오의 비율(22.5%)이 다른 매체보다 높았으나, 제2집단의 경우 텔레비전이라고 응답한 비율(51.5%)이 월등히 높았다. 이를 통하여 음악문화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들이 음악적 경험의 많은부분을 텔레비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제2집단의 아동들이 대중가요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결과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은 첫째, 텔레비전이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시청자들의 음악적 기호를 한쪽방향으로(대중음악) 호도한다는 것과, 둘째, 앞선 제1차와 제2차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시청각 자극이 혼합된 텔레비전으로 음악을 경험할 경우 청각에만 의존하여 음악을 경험(라디오, 오디오)하는 것이 비해 음악적성의 계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특이한 현상은 비록 그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제2집단의 경우 의미있는 음악경험의 매체로 학교를 선택한 아동이 4%정도인 반면에 제1집단의 경우 약 2%에 불과했다. 이는 제1집단과 제2집단 모두 학교에서의 음악적 경험을 아동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학교음악교육이 아동들에게 질적으로 유의미한 경험이 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제2집단의 비율이 제1집단에 비해 높다는 것을 통하여,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에서 학교음악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의 학교일수록 음악수업 이외의 다양한 음악경험의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음악교육적 측면에서 아동들을 대중음악에 대한 과도한 노출로 인한 무방비로부터의 보호 및 순화는 물론, 예술음악으로의 선도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는 현재 한국의 교육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교육비의 과다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⁵⁾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한 한 학교와 서울의 전지역의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첫째, 음악적성검사를 통하여 두 집단의 음악적성을 비교하고, 둘째, 아홉 개 문항으로 구성된 음악적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두 집단의 음악적 환경을 비교하였으며, 셋째, 음악적 환경에 따른 음악적성 발달의 대한 영향을 비교하였다. 적성검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음악적성검사결과 두집단의 음악적성점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아동의 음악적 환경이 음악적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조사연구에서 확실하게 드러났다.

둘째, 음악적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두 집단의 음악적 환경이 모든 조사영역에 걸쳐 일관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학교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음악환경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설문항목에 따른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제2집단이 제1집단에 비하여 음악적 환경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적성점수도 낮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제1집단의 음악적성점수가 제2집단에 비하여 높은 요인으로 음악적 환경의 제변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음악교육의 공공교육화에 대한 좋은 예로서 독일의 시립음악학교(Staedtisch Musikschule)제도를 들 수 있다. 독일에는 각 도시마다 시립 음악학교에서 아동들이 원하는 음악실기교육을 방과후에 실비부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조효임(1995), 음악능력의 정의와 평가 방법에 관한 고찰(음악교육평가의 심리학적 접근방법). 음악교육연구, 14, pp.317-356.
- 조효임 · 최은식 · 정진원. (1996), 한국초등학생의 음악적성에 관한 연구(고든의 중급 음악적성검사(IMMA)에 근거하여). 음악교육연구, 15, pp.437-470.
- Baltzer, S. (1988), A validation study of a measure of musical creativity.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6(4), 232-249.
- Bentley, A. (1996), *Measures of Musical Abilities*. London : George G. Harrap & Co.
- Boyle, J. D., and Radocy, R. E. (1988),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2nd ed.)*. Illinois : Charles C Thomas. Publisher.
- _____, and Radocy, R. E. (1987).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usical Experiences*. New York : Shirmer Books.
- Colwell, R. (1969-1970), *Music Achievement Tests*. Chicago : Follett Educational Corporation.
- _____. (1970), *The evaluation of music teaching and learning*. Englewood Cliffs : Prentic Hall.
- _____. (Ed.), (1992),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New York : Shirmer Books.
- Dowling, W. J., and Harwood, D. (1986). *Music Cogni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 Drake, R. M. (1957). *Drake Musical Aptitude Tests*. Chicago : Science Research Associates.
- Ebel, R. L., and Frisbie, D. A. (1990), *Essentials of educational measurement*. (5th ed.).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 Freeman, J. (1974), 'Musical and Artistic Talent in Children.' *Psychology of Music*, 2(1), 5-12.
- Gaston, E. T. (1957), *A Test of Musicality (4th ed.)*. Lawrence : O' Dell' s Instrumental Service.
- George, W. E. (1980),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usical behavior. In D. A. Hodges(Ed.), *Handbook of music psychology*(pp.291-340). Lawrence :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 Gibbons, A. C. (1983),. Item analysis of the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Journal of*

Music Therapy.

- Gordon, E. (1965), *Musical Aptitude Profile*. Boston : Houghton Mifflin.
- _____. (1967), *A Three-Year Longitudinal Predictive Validity Study of Musical Aptitude Profile*. Iowa City : Univ. of Iowa Press.
- _____. (1979a),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Chicago : G.I.A. Publications.
- _____. (1979b), Developmental music aptitude as measured by the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Psychology of Music*, 7(1), 42-49.
- _____. (1984), *Learning Sequences in Music*. Chicago : G. I. A. Publications.
- _____. (1987), *The nature, descrip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usic aptitudes*. Chicago : G. I. A. Publications.
- Hargreaves, D. J. (1986).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of Music*.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dden, S. K. (1982), Prediction of music achievement in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0, 61-68
- Hodges, D.A. (Ed.), (1980), *Handbook of Music Psychology*. Lawrence, Kansas : National Association of Music Therapy.
- Howell, P., Cross, I., and West, R. (1986), *Musical Structure and Cogni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 Karma, K. (1982), Validating tests of musical aptitude. *Psychology of Music*, 10(1), 33-36.
- _____. (1986), Item difficulty values in measuring components of musical aptitude.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89, 18-31.
- Kirkpatrick, W. C. (1962), *Relationship between the Singing Ability of Pre-kindergarten Children and Their Home Environment*. Doctoral Diss.,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 Lehman, P. R. (1968), *Tests and measurements in music*.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 Long, N. H. (1965), *Indiana-Oregon Music Discrimination Test*. Bloomington : Midwest Music Tests.
- Martin, P. J. (1976), *Appreciation of music in relation to personality factors*, Diss., University of Glasgow.
- Rainbow, E. L. (1965), A pilot study to investigate the constructs of musical aptitud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3, 3-14.
- Robinson, R. L. (1985), *Microcomputer Adaptation of the Drake Musical Aptitude Tests*.

Gainesville : University of Florida.

- Rutkowski, J. (1990),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children's singing. *The Quarterly*, 1, 81-95.
- Schumidt, C., and Sinor, J. (1986),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music audiation, musical creativity, and cognitive styl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4(3), 160-172.
- Seashore, C. E., Lewis, D., and Seatbelt, J. G. (1960), *Seashore Measures of Musical Talents*. New York :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Originally Published in 1939.)
- Shuter-Dyson, R., and Gabriel, C. (1981), *The Psychology of Musical Ability (2nd ed.)*. London : Methuen.
- Simons, G. M. (1974), *Measurements of musical listening skills for young children*. Chicago : Stoetling (printed in 1976).
- Sloboda, J. (1985), *The Musical Min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Ed.), (1988), *Generative Process in Music*.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Thackery, R. (1972). *Rhythmic Abilities in Children*. London : Novello
- Webster, P. R. (1988). New perspectives on music aptitude and achievement. *Psychomusicology*, 7, 177-194.
- Wing, H. D. (1954), Some applications of test results to education in music.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 161-170.
- _____ (1961). *Standardized Tests of Musical Intelligence*. The Mere, England : National Foundations of Educational Research. (Originally Published in 1939.)
- _____ (1971). *Tests of musical ability and appreciation*.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immerman, M. P. (1971), *Mus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ashington, D. C. :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Music Aptitude and Musical Environments of Korean Elementary Students

Hio-Ihm Cho, Eunshik Choi, and Jin-Won Chu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 (1) to compare music aptitude scores of two different groups of Korean elementary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the two elementary schools which had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s; (2)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musical environment of the two groups ; and (3) to compare the effects of the different musical environments on the development of music aptitude.

This study investigated two groups of fourth graders enrolled in the two elementary schools. Group one(n=160) consisted of the whole fourth graders at a school located in the central part of Seoul. Group two(n=262) consisted of the whole fourth graders at another school located in the area of Seoul where most of the residents were associated with the socio-economically low clas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for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

- (1) The scores of the music aptitude test(IMMA) of the two groups indicat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p<0.05$) in terms of music aptitude. This result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the environmental factors a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music aptitude;
- (2) The analysis of the survey which were designed to gather information on various musical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groups showed a very consistent tendency. That is, group one had better musical environments than group two in all of the nine

survey items. This result, in turn, showed a clear relationship between the musical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music aptitude;

- (3) The fact that the music aptitude scores of group two were higher than those of group one and that group one had better musical environments than group two indicate musically rich environments are one of the important contributing factors to the development of music aptitude.